

좋은 건물과 양식적 일치의 문제

The Problem of Good Architecture and Stylistic Consistency

임석재 / 이화여대 건축학과 교수
by Yim Seock-Jae

흐린날 오후에 SBS 탄현제작센터를 찾았다. 일산을 벗어나 시골길로 접어들자 곧 왼편에 건물이 나타났다. 상당히 큰 덩치의 건물인데도 배를 얹어놓은 듯한 모습과 부드러운 곡선이 합쳐진 조형성 덕분에 전체적인 인상은 친숙하게 느껴졌다. 한 건물의 첫 인상이 이처럼 편안한 느낌을 주는 경우는 흔치 않은 장점일 수 있지만 비평을 해야되는 사람입장에서는 얘기거리가 없는 무난한 건물인 것 같아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건물을 가까이에서 보고 실내를 둘러보면서 중요한 논쟁거리를 하나 발견하였다. 이 건물에는 후기 모더니즘의 여러 양식어휘들이 혼재되어 쓰이고 있다는 점이 그것이었다. 한 건물을 양식사조에 맞추어 편가르기식으로 이해하는 시각은 그다지 좋은 감상법은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양식사조라는 것이 일부 식자들이 자신들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적으로 정해놓은 말장난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양식사조에 맞춘 접근법이 유용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다음의 두가지 경우일 때 그러하다. 첫째는, 양식사조별 분류가 단순한 이름붙이기의 차원을 넘어 한 시대의 고민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환산되어질 수 있을 때이다. 둘째는, 건물에 명확히 구별되는 양식어휘가 쓰일 때이다. 이런 경우 양식사조별 접근은 많은 가정 위에 논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한층 풍부한 얘기거리가 오갈 수 있게 된다. 이상과 같은 두가지 전제조건위에 SBS 탄현제작센터에 대한 양식사적 관찰을 통해 우리시

대의 몇가지 건축적 고민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컨테이너 건축과 형태주의 문제

SBS 탄현제작센터는 외부에서 볼 때 앞쪽의 본체와 뒷쪽 지원공간의 두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능적으로 보아 이 두 영역사이에는 흔히 '유기적'이라고 불리우는 것 같은 긴밀한 연관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런데 작가는 이러한 두 영역을 각기 다른 조형개념으로 처리하였다. 즉 앞쪽의 본체는 컨테이너 건축(Container Architecture)으로, 그리고 뒷쪽의 지원공간은 곡선모서리가 반복되는 형태주의 개념으로 처리되어 있다. 이 각각의 처리는 그속에 담는 기능을 생각해 볼 때 적절한 선택인 것 같아 보인다. 또한 그 결과 전체적으로 완만한 곡선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방문객들을 부드럽게 맞이하고 있어서 방송국의 이미지로는 알맞은 모양새를 갖춘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컨테이너 건축과 형태주의라는 두가지 조형개념이 서로 반대되는 기본건축관을 갖는다는 점이다. 컨테이너 건축과 형태주의는 모두 1960년대에 모더니즘의 한계상황에 대한 해결책으로 시도된 건축적 경향들이었다. 그러나 기본방향에 있어서 이 두 경향은 중요한 차이점을 갖는다. 즉, 컨테이너 건축은 모더니즘의 기본개념을 계승하는 가운데 이것을 수정하려는 입장이었던데 반해 형태주의는 모더니즘을 전면부정하며 시작된 반(反)모던운동이었던 것이다. 이 두가지 경향이 SBS 탄현제작센터에서는 언뜻 보기에 서로 유사해 보이는 조형적 결과물들을 내놓고 있지만 실은 시대상황에 대해 매우 다른 건축적 해답을 추구하던 이질적인 경향들이었다.

컨테이너 건축은 기능과 생산성을 제1결정 요소로 추구하던 국제주의 양식의 기본개념은 받아들여 건물의 박스윤곽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하이-모더니즘(High-Modernism)의 규율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추구하려는 경향이다. 하이-모더니즘의 대표적 건축가인 미스 반 데 로에는 건물의 구조적 구성방식이 그대로 형태요소로 쓰이는 처리기법을, 그리고 발터 그로피우스는 복도, 계단, 프로그램 구성 등과 같은 기능들이 형태를 결정하는 처



배면 전경



진입로에서 본 건물 본체부 전경. 컨테이너 건축을 이용한 배의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다.

리기법을 각각 건축적 규율로 제시하였다. 이 경우 건물의 박스윤곽은 이러한 규율적 기법들이 주어진 조건에 맞추어 분절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이에 반해 컨테이너 건축은 처음부터 커다란 박스(그야말로 컨테이너같은)를 먼저 설정한 후 그 안에 물건 담듯 기능을 포장해내려는 기본전략을 추구한다.

이것은 물론 구조단위나 기능 등과 같은 건물의 구성방식이 어떤식으로든지 외부에 표현되어야 한다는 하이-모더니즘의 강박관념에서 벗어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처리방식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여전히 기능과 구조의 효율을 위한 정형화된 건물구성은 박스형태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한다. 이런점에서 컨테이너 건축은 기본적으로 모더니즘의 이상을 계승, 수정하려는 시대사적 입장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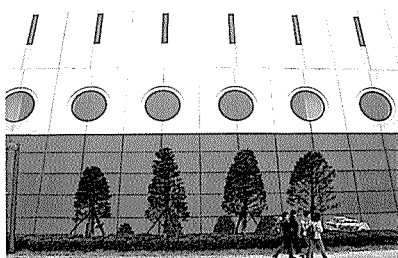
SBS 탄현제작센터에서 건물의 본체에 컨테이너 건축 개념을 적용한 처리는 적절한 아이디어 같아 보인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방송제작센터라는 건물의 특성상 규격화시키기 어려운 다양한 크기의 공간들이 혼재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이럴 경우 건물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외부에 표현하려다 보면 자칫 전체구성이 혼란스러워지는 문제점이 생기게 된다. 물론 이와같은 조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조형성을 건물의 주된 특징으로 추구할 수도 있지만 작가는 이러한 접근개념의 SBS 탄현제작센터에는 안맞는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 즉, 방송국이라는 건물의 이미지에 복잡한 형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을 수 있다. 그 대신 작가는 단순하면서도 친근감을 주는 형태를 차용함으로써 SBS의 이미지 형성에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건물이 놓이는 터가 시골마을의 자연속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인공적인 '멋부리기' 보다는 다소 투박해 보이는 '덩어리의 윤곽'이 더 적절해 보인다.

컨테이너건축은 기능과 구조방식으로부터 형태를 결정하려는 모더니즘건축의 시기가 지났음을 알리는 징조였다. 이것은 한 양식이 안정기에 접어든 이후에 나타나는 매너리즘단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 결과 모더니즘건축의 정수인 박스건물이 이제 더이상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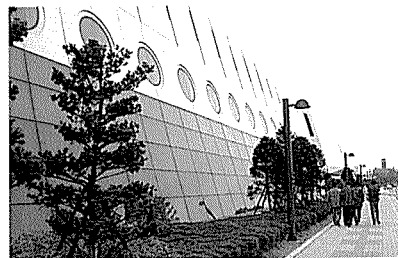
과 구조방식이라는 모더니즘적 고민들의 표상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하나의 완결된 의장어휘단위로 변해가는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다. '박스의 양식화(Stylization)' 단계쯤으로 표현될 수 있는 컨테이너 건축은 박스를 자유로운 조형처리대상으로 파악하려 한다. 박스의 모서리한 귀퉁이를 바꾸는데도 많은 조건들을 따져보던 모더니스트들의 진지함은 이제 도가 지나친 신중함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는 시기가 온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런 종류의 고민들은 많이 축적이 되어 있어서 기성복 사입듯 손쉽게 차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가들은 그 다음단계의 건축적 변별요소를 찾아나선 것일 수도 있다. 그 결과 컨테이너 건축가들은 창문사이의 매듭을 가능한 한 깨끗이 지운 커다란 유리덩어리로 건물을 구성하거나 배의 형상을 차용하는 등의 조형조작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형태주의는 모더니즘의 박스건물에 대해 위와같은 컨테이너 건축보다는 좀 더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추구한다. 형태주의도 박스건물의 단조로움을 극복하려는 점에 있어서는 컨테이너 건축과 동일한 기본개념을 공유하지만 이것을 처리하는 방향에 있어서는 상반된 입장을 나타낸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형태주의는 기능과 구조적 효율성을 제1결정요소로 추구한 모더니즘 건축의 기본가치체계에 대해 컨테이너 건축과 상반된 입장을 나타낸다. 즉, 컨테이너 건축은 박스건물의 단조로움을 없애려 하더라도 여전히 기능과 구조적 효율성을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삼는다. 이에 반해 형태주의는 조형성을 제1결정요소로 추구하며, 만약 조형성이 기능이나 구조적 효율성과 상치될 경우에는 전자를 위하여 후자를 희생하는 명확한 반(反)모더니즘적 입장을 갖는다. 이러한 배경하에 형태주의는 건물의 조형처리에 있어서도 컨테이너 건축보다는 훨씬 과격한 비정형 요소들을 차용한다.

SBS 탄현제작센터에서는 세트창고와 소품창고를 담는 지원공간을 크고작은 곡선윤곽이 두드러진 형태주의 기법으로 처리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둥글둥글한 곡선으로 모서리를 깎아낸 여러매스들을 중첩시키는 조형개념



건물 본체부 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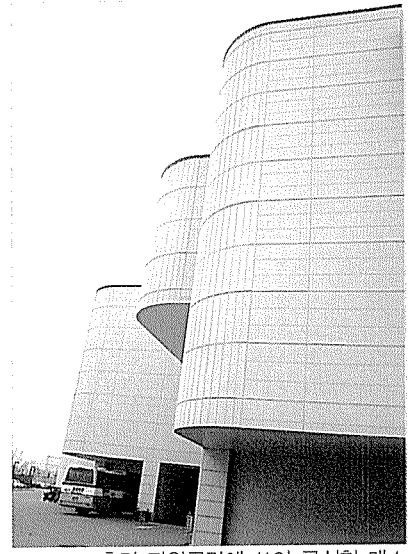
건물 본체부의 경사면



보일러실의 경사면



후면 지원공간에 쓰인 곡선형 매스



후면 지원공간에 쓰인 곡선형 매스

이 명확히 제시되고 있다. 이렇게 형성되는 지원공간의 형태윤곽은 분명히 박스건물과는 다른 조형적 멋을 주면서 형태주의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원공간에 쓰인 이러한 종류의 곡선어휘는 형태주의 경향에서는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어휘이기도 하다. 특히 SBS 탄현제작센터의 경우 이러한 곡선이 울동감과 친근감이라는 건물전체의 분위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이 건물에 쓰인 형태주의 경향의 조형 기법은 그 자체로서는 무난하게 처리된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형태주의 기법을 콘테이너 건축과 병렬시켜 사용한 점에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태주의와 콘테이너건축은 기능과 구조성이라는 모더니즘건축의 핵심적 문제에 대해서 상반되는 입장을 갖는 경향들이다. 다른편면 이 두 경향은 외형적으로는 유사한 모양을 만들어내는 공통점을 공유하기도 한다. 이 두 경향사이에는 이처럼 상호모순적인 이중적 관계가 존재하는데 작가는 이점에 대한 고민없이 형태적 동일성만을 위하여 두 경향을 혼용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

작가가 만들어내는 모든 결과물이 반드시 양식적 고민위에서 추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서처럼 비교적 명확히 구분되는 양식적 어휘를 사용할 경우, 작가는 이것의 시대사적 의미에 대한 건축적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자칫 작가는 모방논쟁에 휩쓸리기 쉽다. 특히 우리의 경우처럼 서양사조에 대해서 애증의 극단적 입장을 갖는 나라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SBS 탄현제작센터에서 작가는 상반되는 시대사적 입장을 갖는 양식경향을 섞어쓰는데 대해서 조형적 동일성이라는 시각적 목적 이외에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형태주의 기법으로 처리된 지원공간은 본체의 콘테이너 건축에 너무 맞추려다 형태주의 특유의 과감성을 상실한 것 같아 보인다. 사실 형태주의의 정수는 고도의 형태조작에서 오는 절실한 긴장감에 있다. 그런데 이 건물의 지원공간에 쓰인 곡선형태들은 분절, 반복, 높이변화 등의 기본적인 결정기준에 있어서 필연성이나 절실함이 결여되어 있다. 이런 문제점은, 한편으로는 본체와 지원공간에 상반되는 양식경향

을 혼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두 영역의 기능이 맞물린 관계로 합일점을 찾아야 하는 이중적 입장에서 파생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해석은 기능의 우선순위상 지원공간을 본체에 종속시키려는 의도와 연관지어 볼 때 더욱 분명해진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이 건물에서는 형태주의 경향으로 처리된 지원공간과 콘테이너 건축으로 처리된 본체사이에 종속적 일치보다는 강한 대립적 긴장의 관계를 표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II. 기능과 이미지의 문제

SBS 탄현제작센터의 외부구성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같이 잘 처리된 점과, 아쉬움이 남는 점의 양면적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내에 들어가게되면 이 건물은 매끄럽지 못한 처리가 더 많이 눈에 띈다. 이 내용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는 기능과 이미지사이의 상충문제이다. 이 건물의 본체는 배를 엮어놓은 것 같은 방주(Ark)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얻어지는 건물측면의 완만한 경사는 매우 친근한 분위기를 형성하면서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 일으킨다. 특히 배의 선실에서 차용한 원형창은 이러한 분위기를 배가시키면서 부둣가의 설레임과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심같은 것까지도 느끼게 해준다. 많은 건축가들이 이처럼 즐겁고 가벼운 느낌을 내기 위해 배의 이미지를 즐겨 사용하곤 한다. 그리고 SBS 탄현제작센터의 경우에도 배의 이미지를 적절히 사용하여 방송국이라는 건물의 특성에 맞는 분위기가 얻어지고 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사용자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러한 배의 이미지가 기능적 문제점들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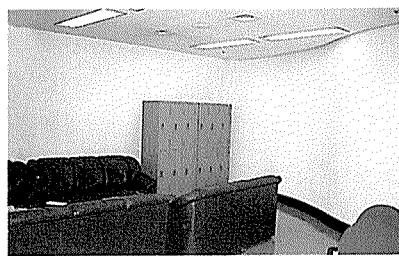
가장 큰 문제는 외벽을 경사지게 처리하였기 때문에 건물의 단부를 따라서 천정고가 확보되지 못한 채 죽은공간(Dead Space)이 나오는 점이다. 이러한 죽은공간은 각 층마다 100여평에 달하며 특히 기계설비시설이 놓이는 3층은 천정고가 사람키보다 더 큰 기계에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죽은공간이 건물의 양 끝부분을 따라서 버려져 있었다. 그 다음의 문제는 배의 이미지



로비에서 본 경사면



콘테이너 건축의 창 디자인



창 없는 방



고정창이 쓰인 방

를 살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개구부를 만들었기 때문에 실내에 창을 전혀 못갖는 방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점이다. 이러한 실내공간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이다. 하루종일 햇볕도 못 받고 바깥경치도 못보며 강제환기 한 가지에 실내환경을 의존해야 한다. 창을 갖는 창중에서도 상당수는 고정창으로 처리되어서 환기에 문제가 많았다. 최근들어 실내 열환경을 비롯한 건축환경의 중요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이러한 문제점들은 형태이미지를 얻기위해 치르는 대가치고는 너무 크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마지막 문제점은 외벽이 경사면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우천시 먼지가 안씻겨 내려가고 남아있으며 무릎이 닿아 청소가 힘든 등 사후관리(Maintenance)가 어렵다는 점이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들이 배의 이미지를 차용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들이었다. 형태이미지와 기능은 기본적으로 어느정도까지는 상충될 수 밖에 없으며 이중 어느쪽에 우선 순위를 둘 것인가는 쉽게 결정할 문제는 분명히 아니다. 좀 더 일반적으로 얘기하자면 건축가쪽에서는 아무리 완벽하게 기능을 만족시켰다고 생각해도 사용자쪽에서의 불평은 늘 있게 마련이다. SBS탄현제작센터에서 작가가 배의 이미지를 도입할 경우 위와같은 문제점들이 생길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생각을 하고도 그러한 문제점들을 그냥 놔두었다면 그것은 작가가 기능보다는 형태이미지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은 작가의 건축철학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 이와 반대로 작가가 위와같은 문제점들을 예측 못했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나는 더 이상 이 문제를 SBS 탄현제작센터의 작품성과 연관지어 옳고 그른 판정의 대상으로 물고가고 싶지는 않다. 그 보다는 이러한 상충이 일어나게된 이유에 대한 나름대로의 진단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내용은 바로 이 건물의 실내처리가 매끄럽지 못한 두번째 내용에 해당된다.

즉 둘째는, 작가가 컨테이너 건축의 의미를 깊이있게 생각해보지 않고 배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 표피를 씌울

목적으로만 차용한 것 같은 느낌을 갖는다. 컨테이너 건축은 기본적으로 기능을 제1결정요소로 추구하는 모더니즘의 연장선상에 놓인 경향이다. 이것은 컨테이너의 표피를 씌울때 기능과 형태사이의 상충이 일어나게되면 기능에 우선권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SBS 탄현제작센터에서는 컨테이너 건축을 차용하면서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형태주의적 입장을 취하는 불일치를 보여준다. 이렇게 보았을 때 작가는 컨테이너 건축을 형태주의의 일부분으로 이해한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사실 작가의 이런 입장은 실내처리에서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컨테이너 건축은 모더니즘의 기능주의 건축관을 이어받는 과정에서 기능의 의미를 공간적으로 새롭게 정의해 내어 실내에 다양한 공간구조를 만들어 내려는 건축관을 갖는다. 이것은 물론 흔히 얘기하는 독단주의적 모더니즘(Dogmatic Modernism)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결과 컨테이너 건축은 건물의 외부를 단순한 형태의 덩어리로 처리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실내에는 다양한 공간의 파노라마를 연출한다. 예를 들면, 기능을 기본 유닛의 반복이라는 공간적 의미로 해석해 내기도 하고 혹은 복층과 단층사이의 공간적 조합이 시도되기도 한다. 사전에 치밀한 계산에 의해 불력을 끼워넣듯 다양한 실내공간이 형성되기도 한다. 컨테이너 건축의 표피가 대량생산의 이미지로 포장될 경우 실내도 역시 동일한 모티브에 의해 구성된다.

독단주의적 의미만을 갖던 기능을 이렇게 다양한 공간적 개념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는 물론 후기산업시대의 사회기능분화현상이 건축분야에 반영된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모더니즘에 대한 이처럼 다양한 고민을 모두 담아내는 컨테이너의 기능은 시대적으로 보아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즉 컨테이너건축은 복잡해져가는 후기근대기의 시대적 이미지들을 자질하게 분화하려는 다원주의적 시도에 반대하여 이 보다는 이것들을 기술생산의 이미지라는 보편적 기준에 의해 하나로 묶으려는 시대적 입장을 갖는다. 후기근대기에 접어들면서 전문영역별로 행태기능들이 다양, 세분해지고 있지만 컨테이너 건축은 이러한 복합적 공간기능을 일일이 외부에 표출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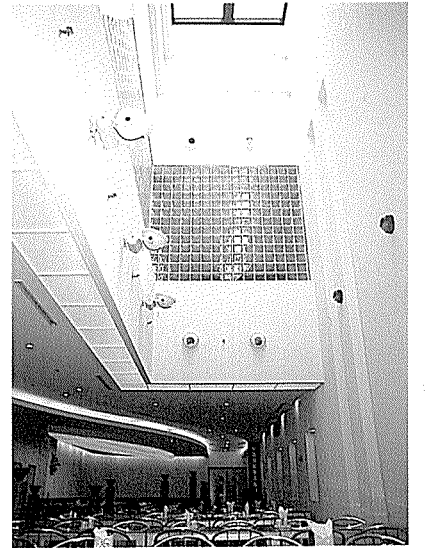
로비에 쓰인 석재



휴게실과 로비에 쓰인 석재



2층의 내벽과 천장에 쓰인 곡선



식당에 쓰인 장방형 우물천장

기 보다는 보자기로 찢듯 큰덩어리로 감싸버리려는 기본 건축관을 갖는다. 마치 콘테이너 안에 온갖 물건들이 층층이 담겨지듯이 말이다. 그리고 SBS 탄현제작센터는 프로그램의 구성상 이러한 콘테이너 건축적 구성이 적용되기에 적합한 건물타입이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건물 앞에 섰을 때 콘테이너 건축으로 외관이 짜여진것을 보고 필자는 실내구성에 큰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실내구성은 독단주의적 모더니즘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사용자들로부터 걸모양 때문에 기능에 문제가 많다는 불만을 들으면서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어 갔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었다. 실내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나는 또 다른 문제점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양식적 일치' 라는 문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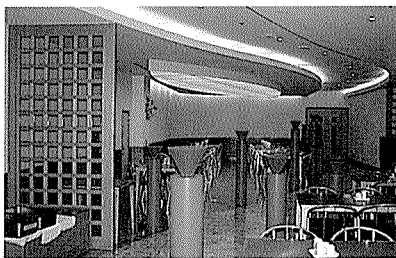
Ⅲ. 좋은 건물의 기준과 양식적 일치의 문제

SBS 탄현제작센터의 이방 저방을 다니면서 느낀 가장 큰 당혹감은 여러 양식사조의 어휘들이 무분별하게 차용되고 있는 점이었다. 이것은 '양식적 불일치' 라는 개념에 의해 판단될 수 있는 문제이다. SBS 탄현제작센터에서는 건물의 외부와 외부사이, 그리고 다시 내부의 여러 곳 사이에 일치감이 결여된 다양한 양식어휘들이 혼재되어 있다. 몇가지 예를 들어보면, 우선 포스트모더니즘어휘의 사용이 가장 눈에 띈다. 석재의 색채와 마감상태를 다양화시켜 장식효과를 노린 점(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석재종류가 많지 않아 그 효과가 미미하긴 하지만)과 복도에 포스트 모던풍의 색채조합(예를들면 옥색과 자주색의 조합)이 쓰인 점 등이 이것의 대표적 예가 될 것이다. 이외에도 로버트 스텐(Robert Stern)이 즐겨쓰던 '꼭선으로 천장 찢기' 어휘도 2층의 일부분과 식당 등에 쓰였다. 식당에는 이외에도 리차드마이어(Richard Meier)식의 형태주의 공간구성기법이 쓰이기도 하였으며 맴피스그룹(Memphis Group)의 소품어휘들이 장식물로 군데군데 채워졌다. 복도의 일부에서는 고전주의적 모뉴멘탈리티가 느껴지기도 하였다. 계단난간에는 하이-테크 건축의 디테일이 쓰였는데 정작 계단슬라브는 하이-테크건축과 아무 상관없는 단순구조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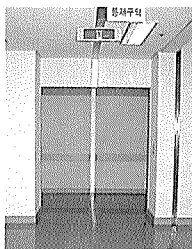
이처럼 SBS 탄현제작센터의 실내에는 여러 양식어휘

들이 혼재되어 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것들이 이 건물을 구성하는 가장 큰 개념인 콘테이너 건축과 아무런 유기적 연관성을 못 갖는다는 점이다. 콘테이너 건축은 그 나름대로 실내공간 처리기법과 실내어휘를 갖는다. 포스트 모더니즘 역시 그러하고 마이어의 형태주의 역시 그러하다. 스텐이 천장을 꼭선으로 찢었을때는 꽤 절실한 이유가 있었고, 그것은 당연히 건물의 가장 큰 틀과 유기적으로 동일한 존재이유를 갖는 어휘였다. 장미꽃에는 장미의 잎과 장미의 줄기가 어울린다는 자연의 교훈은 어느 시대나 작가에게는 가장 무거운 시금석이였다. 물론 이러한 자연의 교훈을 깨려는 반(反)디자인 운동이 일고 있긴 하지만 SBS 탄현제작센터는 반 디자인 운동의 건물은 아니다. SBS 탄현제작센터에서는 심한 양식적 불일치가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외국작가를 모방한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다분하다.

SBS 탄현제작센터는 좋은 건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좋은 건물에 대한 기준은 여러 겹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SBS 탄현제작센터는 매우 부드럽고 부담없는 첫 인상을 주어서 좋았다. 그러나 동시에 꼼꼼이 따져본 결과 위와같은 아쉬움도 함께 남는 건물이었다. 현존하는 작가의 건물을 양식사적으로 토막내어 이름표 붙이듯이 해석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양식사적 기준에 의해 한 건물이 평가되었을 경우 그것은 그러한 지식을 공유한 극히 일부분 사람들만의 공허한 지적유희로 끝나버릴 위험성이 많다. 그러나 양식사적 해석관점이 한 시대의 가치체계를 건축적 의미로 물어보려는 집합적 문화현상의 역할을 해 낼 수 있다면 매우 유용한 기여를 할 수도 있다. 서구건축과의 경계가 거의 지워져 가고 있고, 다른한편으로는 우리만의 양식이 창작되지 못하고 있는 요즈음의 상황이 한국 건축가들에게는 안팎으로 시달리는 어려운 시기에 해당될 것이다. 이런 가운데 서구건축의 정확한 이해는 최선책은 못될지언정 차선책은 될 수 있을 것이다.



식당 소품디자인



복도의 색채 조합



복도에서 느껴지는 고전적 모뉴멘탈리티



계단 난간에 쓰인 하이-테크 건축의 디테일